

# 지금 이시각

2024. 6 TIME NOW

스물네번째



김희진\_ 어느 나르시스트의 죽음

X\_ 그 곳에 가고싶다 : 부산

이채연\_ 용산에서

오종원\_ 자전거를 타자 : 설악그란폰도(메디오폰도)

Pighead Lab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표지이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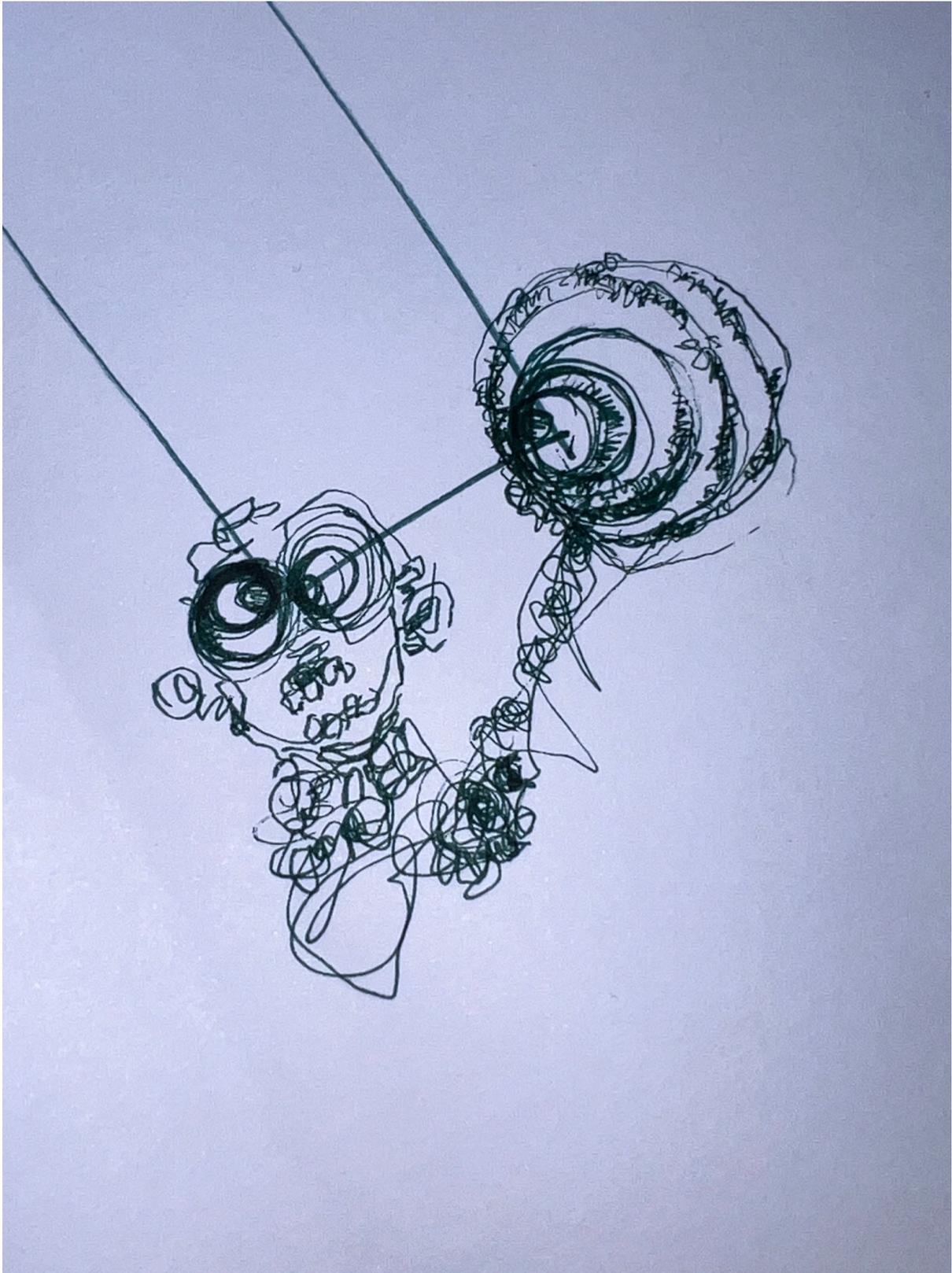
목포의 나름 유명한 뼈해장국 집. 백종원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다고 하는 맛집이라고 한다. 늦은 밤 도착한 목포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들어간 집이 바로 이 집이었다. 이곳의 뼈해장국은 맑게 끓인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받고 국물을 한 입 뜨자마자 바로 느낌이 왔다. 기존의 뼈해장국 하면 떠오르는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국의 느낌이 아닌, 살짝 칼칼 하기는 하지만 개운하고 입 안이 텅텅하지 않은 그런 열큰함이었다. 국물에 뼈와 파 말고 별도의 건더기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느낌이 꼭 콩나물을 넣어 끓인 느낌이었다.(그래서 그런지 반찬으로 콩나물이 나온다.) 그러한 만큼 뼈에 붙은 고기들도 느끼하거나 잡내가 나지 않고 적당히 담백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뼈해장국의 고기를 먹을 때 별도의 양념장을 안쓰는 편인데, 이집의 고기는 반드시 찍어 먹게 되었다. 그게 또 나름의 흥미가 있었다.



김희진  
노동자

## 어느 나르시시스트의 죽음

1. 말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해명했는데, 그것의 의미/효용은 차치하더라도 내 감정에 큰 불을 놓는다. 누구든, 누구에게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가장 호소력이 짙은 '말'이란 차라리 태도를 곧게 유지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것/ 또는 그 과정.
2. 아는 '척'하는 것도 관두고 싶다.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노력했던 것인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는 항상 내 '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3. 인생 전반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느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흥미가 별로 없다. 하긴 자극적인 이슈(주로 추악한 것)를 찾거나 당장 쾌를 주는 것에 집중할 수록,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4.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죽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사실이 나를 좀 더 미치게 한다. 나를 형용할 수 있는 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5. 잘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정말 내가 잘 하고 싶은 걸까? 생각한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 지겹다. 오히려 괴로운 일일지도.
6.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내 외모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한다고 전해 들었다. 매번 드는 여러가지 생각... 어쨌든 정리가 힘든데, 살이나 좀 더 빠자.
7. 꿈을 매우 자주 꾸고, 그 현실감이 대단한데 그 내용은 주로 멀리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보기에 정말 존중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벌인다.
8. 나는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어쩔 저렇게 다들 똑똑할까?



9.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누군가 내 존재를 허락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딘가 불안/긴장하고 조여 있는 느낌이 무척이나 싫다.

10. 체류하고 있는 삶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러한 당위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낼 수 없는 현황에 천착하기 때문은 아닌가.

11. 어쨌든 세상에 나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통인데, 그 안에서 어떤 선택으로 호흡의 양을 조절할 것인지 아는 과정을 차라리 삶이라고 하겠다.

12. 현대 매번 가치의 우열을 가리고 무엇이 나은 삶인가를 다루는 일이 이상에 대한 동경을 넘어 질투나 열등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것은 과도한 상상을 만들고 이미 무너진 독 사이의 파도에서 질식하는 생을 만든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살아간다./죽어간다./살아진다.)

13. 핑계나 상상으로 만든 공터가 더이상 진부함을 피할 수 없다.

14. 조만간 악기를 만들고 싶다. 부러진 나무를 붙여서 관을 만들고, 공명하는 지점을 나뭇의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나 그것의 진위를 판단조차 할 수 없도록 난해한 도피의 새 구성을 만들고자 한다.

15. 선이나 악이 실제로 있는가?

16. 손에는 총 한 자루, 어둠에 갇혀 시야가 없을 때 몇 걸음을 휘적여도 주변을 도저히 인지할 수 없기에 발가락 방향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소리와 반동은 거의 없었다.)

화약이 번쩍. 잠시간 길을 밝히는데, 그곳은 어떤 빌딩의 복도였다. (고도가 꽤 높은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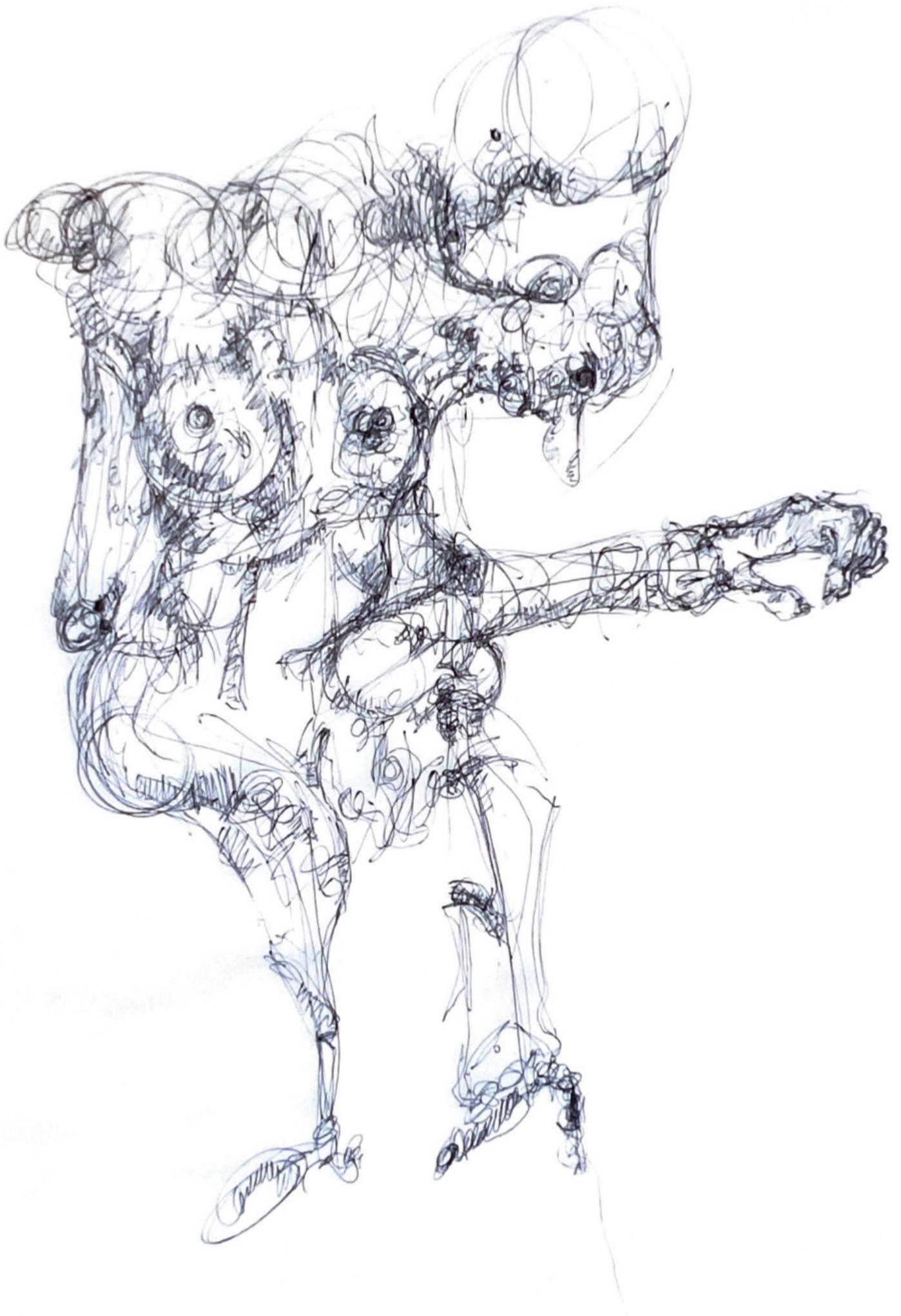
어디선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소리, 이내 비명이 들리는데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걸 들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싸인 뒤 가까운 벽에 몸을 기대어 몸을 문대고 몸을 웅크렸다.

군중은 사상자를 추스르는 한 편, 범인을 찾고자 바닥을 두드린다.

그래서 총을 다시 장전하고 몇 가지 결정을 한 후 잠에서 깨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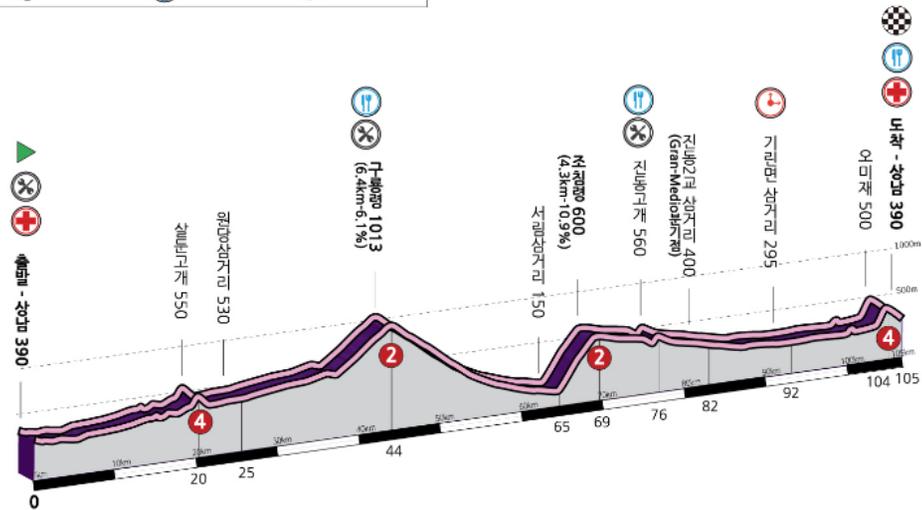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 자전거를 타자 : 설악그란폰도(메디오폰도)

한국의 자전거 대회는 각자 나름의 난이도와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동호인 기준에서는 정점으로 치는 대회가 몇 가지 있다. 설악그란폰도는 그 중 대표적인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웬만한 자전거 코스에 언덕이나 산자락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설악그란폰도의 경우에는 월드투어 기준 제일 높은 F등급의 대회라고 한다.

신기하게도 내가 굳이 저런 대회까지 나가야해?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실력이 늘고 연습량이 쌓이다 보면 슬쩍 눈길이 가게 된다. 도전 욕구도 도전 욕구지만, 혹여나 나랑 실력이 비슷하거나 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전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 듯, 설악그란폰도는 약 오천 여명의 티켓이 작년(23년)에는 5분만에, 올해(24년)에는 4분 만에 매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정도로 인기 많은 대회라고 하니 에잇 모르겠다 하고 나도 질러버렸다.

설악그란폰도의 경우, 그란폰도(총 거리 208km, 획득 고도 3,200m)와 메디오폰도(105km, 획득 고도 1,600 m)로 나뉘어 있다. 나는 아직 그란폰도까지 엄두가 나지 않아 메디오폰도를 지원하였다. 지원하고 나니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누군가 “너무 걱정 말아요. 메디오폰도는 풍경이나 보면서 달리면 돼요.”라고 위안을



메디오폰도 코스. 총 길이 105km에 1,600m를 오른다. (출처 : 설악그란폰도 공식 홈페이지)

해준다. 고맙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잘 달리는 네가 내 기분을 알아?!’라면서 몇 번을 투덜거리게 되더라. 심지어 걱정 말라는 사람들은, 그란폰도를 몇 번이나 달성한 이들이다.

대회 당일, 5월 18일 오전 3시. 지인들과 한 차로 이동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긴장감에 푹 자지도 못했다. 출발시간은 오전 8시이지만, 도착해서 자전거도 세팅하고 몸도 풀고 집합 장소로 이동까지 생각하면 여유롭게 출발해야한다. 참고로 그란폰도는 메디오폰도보다 한 시간 먼저인 7시에 출발하는데, 그란폰도 타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으려나. 대회에 참여하는 오전 여명의 사람들이 한번에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인제의 아침 공기는 5월임에도 상당히 찼다. 역시 강원도의 추위인가. 반팔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 챙긴 바람막이를 꺼입었다. “메디오폰도 출발선에 모여주세요!” 곧 마이크로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슬슬 출발선으로 모이게 된다.

알게 모르게 출발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너무 뒤쪽에 서게 되거나 안쪽으로 몰리면 출발할 때 인파에 갇혀 빠른 시작을 못하게 된다. 또 자전거는 팩(일행)을 형성하여 함께 달려야 체력을 아끼고 효율이 나는 만큼, 사전에 입을 맞춰 두었던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혹은 합류하려 비집고 들어가는 등 벌써부터 대회가 시작된 기분이다. 나의 경우에도 동호회 사람들과 팩을 이루고자 억지로 바싹 붙어 대기하고 있었다.



출발을 준비하는 라이더들.  
웃고 농담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 없다.

지역의 고위인사와 대회 주최측의 인사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이윽고 저 멀리서 폭죽이 파파팡 터진다. 드디어 시작이다. 웃고 장난치던 목소리들이 슬슬 줄어들며 천천히 행렬이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 팩도 인파들 사이로 서서히 나아간다. 미리 말을 맞춰 나를 포함해 5명이 한 팩을 짰다. 대회 시작 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음에도, 이렇게 바글바글한 인파 속에서 누굴 기다리거나 찾을 여유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달려나가야 한다.

메디오폰도의 경우 큰 언덕 두개와 마지막 작은 언덕 하나만 넘기면 되는데, 언덕에 도착하기 까지 약 40여 km의 거리는 거의 평지이다. 신나게 달려나가는 구간이다. 대회뽕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평상시라면 엄두도 안 날 시속 30~40km의 속도가 쭉 유지된다.

아침 햇살이 내려 비추는 인제의 풍경은 참 보기 좋았다. 고요한 지역 소도시의 느낌이라 조금만 벗어나니 바로 산세로 둘러싸인 계곡 사이로 달리게 된다. 확실히 공기가 좋다고 외치며 일부로 숨을 잔뜩 들여 마신다. 남자들에게 인제는 군부대의 도시로도 유명한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훈련을 나가는 듯 트럭에 한가득 타고있는 군인들도 보게 되었다. 그만큼 외지고 산들이 많은 곳이다. 물론 그 덕에 이렇게 자전거 대회를 열 수 있고 또 유명세를 얻기도 했겠지만.

확실히 인기가 많은 대회여서 그런지 아예 옷을 맞춰 입은 팀들과, 또 자전거 계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도 달리면서 얼핏 보이더라. 고프로 카메라를 들고 타는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단 생각만 든다. 나는 지금 팩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벅찬데.

한 시간 정도를 신나게 달리다 보니 슬슬 사람들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바로 구룡령을 만나게 된다. 구룡령과 조침령, 설악그란폰도의 상징과도 같은 두개의 큰 언덕이다. 참고로 이 두 언덕의 조합이 유명해서 인근 다른 자전거 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로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이 두 언덕을 굳이 찾아오다니, 정말 변태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힐에 취약한 나는 이제부터 혼자만의 사투를 벌여야 한다. 업힐의 경우 무조건 가벼운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처럼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은 고역을 치루게 된다.

평균 경사도 6%, 길이 6km. 숫자상으로는 6km라는 거리에 조금 놀랄 수가 있으나, 막상 올라가보니 경사도의 체감은 서울의 남산보다도 낮은 느낌이다. 의외로 도로도 잘 깔려있어서 부드럽고 순탄하게 올라가게 되었다. 설악에 도전한다고 나름 준비한 보람이 느껴진다. 생각보다 속속 올라가면서 풍경을 보는 마음의 여유도 챙겨본다. 사실 도로 주변으로 숲이 우거져 있어 멀리 풍경이 짝 펼쳐지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사이사이로 높은 산세가 보인다. 구룡령과 조침령은 인제와 양양의 경계 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백두대간의 자락이라고 산들이 생동감 있게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5월, 봄 햇살에 온 숲의 잎이 우거져 어느덧 코앞에 닥친 푸르름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가니 대충 30여분 걸린 듯 싶다. 이거 유명세에 비하면 별 것 아니구만. 체감 상은 국토종주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화령 언덕이랑 비슷한 느낌이었

---



대회 1차 보급소.

대체로 인색하지 않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 로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페달을 밟으면 올라가게는 되는 법이니. 정상을 조금 지나서 보급소에 도착하였는데, 벌써 줄이 한 300m는 늘어서 있었다. 꽤나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설악은 처음이고 또 구룡령을 올라온 기특한 나에게 상을 주고자 기다리기로 하였다. 메뉴는 오렌지와 바나나, 에너지바와 쿠키. 그리고 물과 콜라가 있었다. 오렌지를 받자마자 입에 넣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 평상시에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너무나도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두개를 더 흡입하였다. 과자와 쿠키에는 눈이 가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기보다 목이 무척 말랐던 탓일 것이다. 그 자리에서 먹은 콜라 한잔은 정말 온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꿀맛이었다. 조금 쉬었던 탓인지 혹은 구룡령의 꼭대기라 그런지 갑자기 바람이 매우 차게 느껴진다. 또 보급소에서 간식을 먹는다고 너무 시간을 지체하여 땀이 식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부터 올라온 만큼 한없이 다시 내려가야 한다 길래 다시 옷가지를 여미고 출발하였다.

업힐이란 게 결국 올라온 만큼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만, 구룡령은 조금 특이하게 되어있다. 한 방향(내가 올라온 방향)은 경사가 다소 높고 짧지만, 반대 방향(지금 내가 내려가는 방향)은 경사가 낮은 대신 길다. 여기서 구룡령이 유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란폰도 참여자들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룡령을, 대회 말미에 역으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왔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다.

평균 경사도는 4%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150여 km를 타서 매우 지쳐있는 상태에 이 20km의 업힐을 마주하는 것은,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참고로 이 길이 너무나 길고 구불구불해서 ‘용이 구불 구불 몸통을 저으며 아흔아홉 구비를 넘어가는 모양’이라고 구룡령이란대. 그래서 설악이 월드투어 F등급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고(물론 구룡령 외에도 지독한 업힐들이 더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을 타며 나는 차마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긴 다운힐에 다리도 좀 쉬고 한숨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외치는게 들렸다. 이 다운힐이 끝나면 바로 조침령이니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윽고 아주 잠깐의 평지를 만나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 고개를 돌리니... 갑자기 벽 하나가 눈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침령이다. 하도 높고 험해서 새가 고개를 넘어가려다 한숨 자고 간다는 게 이름의 유래이다. 평균 경사도 11%에 거리 4.3km. 평균치도 평균치인데, 도입부부터 절반까지 매우 가파른 언덕이다.



조침령. 사진 상으로는 표현이 덜하나, 각 굽이마다 건물 한 채 정도 높이씩 단차가 난다.

여담으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적이 있다. 조침령이 험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만든 거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한계치까지 치달아서 문제인 것이라고. 그 말이 떠오를 정도로 조침령은 한 굽이마다 5~6층짜리 건물 한 채 정도의 단 차가 느껴질 만큼 매우 가파르게 느껴졌다. 그래서 조침령이 시작되자마자 아예 포기하고 내려버리는 라이더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나도 '조침령이 구만' 하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20%가까이 찍히는 경사도를 보고 순간 고민하게 된다. 아 이거 내려야하나 말아야하나.

이 생각은 조침령을 올라가는 내내 지속되었다. 15~20%가까운 경사도가 조침령의 중간까지 자리잡고 있다. 내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만약에 이게 대회가 아니었다면, 또 내가 이 대회를 위해 몇 달간 감량과 연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100% 내렸을 것이다. 조침령을 오르기 위해 유튜브로 몇 번이나 공부했었지만 이게 카메라에 담기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또 체감하는 것이 너무 달랐다. 특히나 시각적인 공포가 매우 컸다.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데, 눈 앞에 또 굽이들이 큰 단 차를 형성하며 연거푸 늘어서 있는 광경을 보면 자신감이 매우 떨어진다.

그럼에도 자전거는 결국 꾸역꾸역 페달을 밟으며 오르게 된다. 다행이라 해야할지, 내 앞 약 2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같은 동호회 여성 라이더가 올라가고 있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체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내리기까지 하면 무슨 망신이나 싶어서, 저 여성 라이더를 따라잡기 위해 정말 꾸역꾸역 밟은 것 같다. 결국 마찬가지로 30여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결국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 드디어 해냈어!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꾸역꾸역 올라온다. 이제 힘든 구간은 얼추 끝났다고 하지만 마냥 뿌듯해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특히나 기록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할 텐데, 설악은 시작부터 골인까지 통으로 기록을 측정한다. 다른 대회들은 일부 위험한 구간들이 있거나 하여 미계측 구간이 있고, 그런 구간에서 잠깐씩 쉬어가기도 하는데 설악은 그런 구간이 없는 것이다. 구룡령과 조침령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데다, 나는 이미 동호회 사람들과 떨어진 지 오래였다. 더욱이 아침에 시작한 라이딩은 얼추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차량의 통제도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그만큼 대회 시간은 꽤나 지났다는 것이다.

일단 페달부터 밟고 생각하기로 하고, 정상에서 쉬지 않고 바로 다운힐에 진입하였다. 골인까지 전속력으로 내딛는 일만 남은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제부터 눈치껏 팩을 형성하거나 미리 합을 맞춘 이들과 짝을 맞춰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다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는지 업힐 정상에서 쉬지 못하고 다운힐로 진입하는 라이더들이 꽤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이들과 짝을 형성한다. 같이 달려야 힘을 아끼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나 역시 느낌에 나와 비슷하게 달릴 것 같은 라이더를 포착하고 뒤에 착 붙었다. 아무리 연습을 하였지만, 조침령을 올라오자마자 바로 내

려온다는 것은 체력을 회복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뒤에서 바람을 피해가며 조금이라도 체력을 비축할 생각이었다.

조침령을 내려오고 골인까지 남은 거리는 대충 30km. 머릿속으로는 시속 30으로 달리면 한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리가 매우 무겁고, 발은 부어서 신발 안에 짝 차는 기분이다.

마침 두번째 보급지를 만났고, 게토레이를 한잔 받아 마셨다. 원래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벌컥벌컥 들어간다. 아무래도 수분 손실에 피로감이 올라온 듯 싶었다. 아침에는 쌀쌀하다 생각했던 날씨였지만 어느덧 햇살이 상당히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쨍한 날씨랄까. 정오쯤 되었으니 더 심했을 것이다.

물통을 게토레이로 가득 채우고 남은 길을 나선다. 그동안 남은 체력을 짜내 평지에서 스프린트를 치는 것은 종종 연습해왔다. 이대로 시속 30정도로 달리다가, 골인 지점 몇 km 전에서 모든 힘을 짜내 골인을 하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서 남은 힘을 쏟아내 페달을 밟았다.

사람들이 제법 지친 것이 느껴졌다. 한참 앞에서 형광 핑크로 옷을 맞춘 팀이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명이 떨어져 나오더니 결국 내 뒤에 붙어 따라온다. 지인들과 합을 맞춰 참여 했어도, 체력이 바닥나서 뒤쳐지면 팩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이렇게 뒤쳐지면서 팩을 형성하더라도, 최대한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근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달리게 된다. 돌아가면서 선두를 맡아 바람을 막아주고 2인3각 경주처럼 합을 맞춰본다. 그러다 결국 벌어지게 되면 수고했다고 엄지 척을 한번 날려주고 내 길을 간다.

이제 골인이 얼마 남지 않았고 체력은 간당간당하다. 그러나 아뿔싸. 골인 직전에 마지막 남은 업힐이 고개를 내민다. 구룡령과 조침령에 신경을 쓴 나머지, 마지막 남은 업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놈이 은근히 독하다. 이름이 오미재인데, 올라가면서 오매오매 소리가 나온다. 대회 홈페이지 내 코스 이미지에서 이 오미재가 나와있기는 하는데, 그림 상으로는 앞선 두 업힐에 비하면 작은 뾰루지 정도로 보일 정도였다. 실제로 서울 남산 정도의 길이와 경사라 평상시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체력을 다 쏟은 지라 도저히 올라갈 힘이 없다. 경험상 참여했던 대부분의 대회들은 골인 전에 어느정도 긴 평지가 있어서, 마지막 체력을 짜내 스프린터를 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습관처럼 있었다. 나도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인데, 그러다 마주친 업힐에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느낀다. 온몸의 통증이 생생하게 전달되기 시작한다. 같이 달리던 라이더들이 한 두명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걸어 올라가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마 나와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힘을 쥐어짜서 왔는데, 방심에 가까운 상태에서 마주친 업힐에 모든 체력이 동이 남을 마주하는 상황. 나 역시 무지하게 내리고 싶단 생각 뿐이었다.

마지막 500m 남겼을 때가 정말 고비였다. 표현 그대로 어금니를 짝 깨물다가, 마

지막엔 깨물 힘도 없어서 전신의 통증을 직면하느냐 정신이 없었다. 온몸이 구석 구석 소리를 지른다. 엉덩이는 너무 아프고 허벅지도 짜릿한게 허리까지 무거웠다. 어깨와 팔도 너무 빠근하고 아프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머릿속으로 가득했다. 결국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 여기서 내리면 인스타에 설악 메디오 달성을 못 남길 것이라고. 몇 달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인스타에 이거 하나 못 남기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의도적으로 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동기부여가 될 것 같더라.

결국 그렇게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오미재를 넘고, 내려오자마자 1~2km 정도 평지 구간이 있었는데 스프린트고 뛰고 도저히 할 힘이 없더라. 결국 꾸역꾸역 골인을 하게 되었다. 내 기록은 4시간 54분. 물론 애초 완주에 목표를 두기는 하였지만, 같이 참여했던 동호회원들 치고는 좋은 기록은 아니었다. 보람도 보람이지만 아쉬움이 남긴 남더라. 아 보급지를 들리지 말걸. 업힐 연습을 조금만 더 할걸.

하지만 처음 참여한 설악그란폰도 아니던가. 이제 한번의 기록을 남겼으니 다음에는 이것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뒤편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또 나를 훈련시키겠지. 같이 왔던 일행들과 근처에서 식사를 해치웠다. 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많이 막히는 편이라 조금 급하게 움직였는데, 인제를 빠져나가는 우리의 눈에 여전히 메디오폰도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보였다. 시간은 곧 컷오프(대회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위해 준비한 시간들이 있을 테고, 이 도전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것이 대회의 묘미이기도 하면서 스포츠라는 것이 가진 매력일 것이지. 그들의 건투를 빌어보며 설악그란폰도(메디오폰도)를 마치게 되었다. 🐾

2024년 설악그란폰도 참가 기록

2024 설악그란폰도

2024-05-18

Name	오종원
Bib No.	7197
Course	메디오폰도(105km)
Results	04:54:15.02
Start Time	08:04:29.20
Finish Time	12:58:44.22
Section 1	12:18:06.47 (04:13:37.27)
Section 2	()

메디오폰도(105km) 전 351 / 2470

체 순위

메디오폰도(105km) 남 314 / 2131

자 순위

골인 후 기록사진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 용산에서

4월 어느 날 용산에 불일이 있어서 전철로 용산역에 갔다.

용산역 3번출구로 나오니 큰 호텔과 카지노가 나와서 놀랐지만, 아는 장소, 와봤던 곳 전자상가도 있어서 반가웠다. 주변을 걸었다. 이 동네 너무 오랜만이다

전자 상가 주변 거리를 걸으니 옛날생각이 떠오른다.

지금처럼 봄. 대학 진학으로 고향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 온지 얼마 안되었을 때, 오빠가 용산 전자상가에 컴퓨터 부품을 사러 고향에서 올라왔다. 올라온 김에 나를 용산으로 불렀다. 나와는 9살차이 나는 오빠는 컴퓨터와 게임을 좋아했고, 컴퓨터 조립해서 팔아서 돈을 약간 벌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컴퓨터 부품 시장인 이 곳에서 평소 관심 있었던 물건을 보러 다닐 생각에 업(up)된 모습이었던 것 같다. 기분이 좋아서일까? 동생인 나에게 핸드폰을 사줬고 밥도 사줬다. 아 용돈도 줬다. 하하. 엄마가 부탁했던 걸까?

나는 전자상가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거기다 촌티 줄줄 흐르고 멋모르는 학생으로 보였을 거다. 그런 나를 끌고 오빠는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며 가격비교하고 흥정도 하고 그랬다. 생각해보면 둘 다 경상도 사투리에, 두리번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어리숙해 보이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핸드폰이 G2였나 싸이언이였나?

밥은 돈까스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 핸드폰으로 반지하 자취방에서 창문 열고 서서 통화하느라 힘들었던 것도 생각난다.



용산에서\_ 디지털 페인팅, 2024

---

그때와 지금. 달라졌다  
전자상가가 작아진 것 같다. 예전엔 구멍가게 만한 상점들이 거대한 미로를 이루  
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빠는 서울에 쇼핑 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다.

같은 봄날. 그땐 햇살 눈부신 날 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리 바람이 많이 부는지....





X  
작가 & 전시기획자

## 그 곳에 가고싶다 : 부산(釜山)

우리 큰 이모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부산에 살았다. 이모는 부산 영도에서 결혼하고 쪽 살아서 우리 집에서는 큰 이모를 ‘부산이모’ 라고 불렀다. 그래서 난 어려서부터 부산을 방문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이모는 영도에 마당이 있는 독립주택에서 가족과 살았었다. 사촌 언니, 오빠가 출가를 한 후에는 이모는 영도에 해양대학교가 보이고 태종대 가는 길목에 있는 금호에덴 아파트에 살았다. 이모는 음식을 잘했다. 이모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었다. 이모는 무뚝뚝하고 약간은 남성미가 있었고 여자치고 손이 컸다.

또한 자존심도 썩어서 남한테 기죽는 것을 싫어 하였다. 그래서 돈을 잘 써서 소심한 이모부와 자주 싸웠다. 하루는 부산에 내려갔는데 이모부가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가고 없었다. 이모는 반쪽 찢어진 사진을 보여주며 이모부가 자기 얼굴을 다 도려내고 사진을 챙겨 집을 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이모는 수년 뒤 이모부와 화해하고 결국 이모부의 고향인 목포의 압해도로 이사하고 이모부와 살다 올해 돌아가셨다.

내가 처음 부산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대전보다 더 크고 더 붐비는 곳이란 기억밖에는 없었다. 나에게 좀 더 정확한 부산의 얼굴은 내가 대학을 부산으로 가면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먼저 부산에 대한 가장 큰 인상은 ‘노잼’ 대전에 비해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도시의 얼굴이었다. 이는 내가 겪은 부산 사람들의 성격과 나의 대학 시절 동안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만들어졌다.

난 먼저 부산 사람들의 매우 씨꿀벅적이고 직접적인 말투와 빠른 성격에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다. 대전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에 반해 부산은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해서 바다의 시시각각 바뀌는 날씨가 부산 사람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

내가 다닌 한국해양대학교는 ‘아치섬’ 혹은 ‘조도’라고 불리는 섬 위에 있어 학교에 낚시꾼이 많았다. 심지어 해녀도 학교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 하러와 자주 보였다. 저녁에 학교를 벗어나려고 방파제를 걸으면 육지에 다 달아서 그녀의 미역 삶는 냄새가 부두에서 풍겼다. 하루는 어느 날 학교 자갈마당 바다에서 혼자 멍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물속에서 머리가 보였다.

머리는 점점 커지며 곧 사람의 실루엣으로 바뀌었다. 해녀였다. 해녀가 튀어나오더니 나에게 다짜고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 난 맨 처음에는 특수부대 요원인 줄 알았다. 알고보니 해녀는 물질을 하고 난 후 매년 장사꾼에게 미역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었다. 가져갈 거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매년 해변에서 학생들을 보면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 그 해녀의 말투와 몸짓처럼 부산 여성들의 특유의 날카로운 말투와 직접적 대화법에는 대전에서 못 느낀 신선함이 있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이 술집에서 욱 섞어 가면서 큰 소리로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닌 게 재미있게 느껴졌다.

음식도 흥미진진했다. 이모가 해 준 음식은 다 맛도 낫지만 부산 현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매우 달랐다. 짜고 맵고 그리고 김밥에 오뎅이 들어간 것에 충격이었다. 파전을 ‘찌짐’이라고 하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흰 가래 떡을 오뎅 국물에 불려서 ‘떡꼬치’라고 부르며 파는 것도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남포동에서 씨앗 호떡을 파는 것도 신기했다. 그리고 순대를 쌈장 종류의 물이 더 많은 ‘막장’에 찍어 먹는 것도 색다르게 느껴졌다. 난 원래 순대를 잘 안 먹었고 부산에서 처음 먹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 ‘막장’에 찍어 먹는다.

학교를 다니면서 빨리 파악한 것이 부산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보면 일부러 사투리 안 쓰고 서울 말투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왔니? 나도 표준어 쓸 줄 알아.’ 그러나 이미 억양에서 모든 것이 다 틀렸다. 또 내가 대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대전을 부산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이라고 무시하였다. 특히 남성들이 이 경향이 심했다. ‘지방에서 왔구면, 부산이 크지?’ 이러면서 서울에서 안 왔고 부산보다 작으니 첫 대면부터 난 무시해도 될 존재가 되었다. 한국의 비교 교육의 아주 안 좋은 점인 듯 느껴졌지만 난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난 이런 지역 경쟁을 생각하기보다 19살 갓 대학에 들어와 놀기 바빠서 전혀 관심 없었다. 사실 대놓고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는 이런 부산 사람들의 말투와 성격이 좋았다.

당시 학교에는 나처럼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일단 난 1학년부터 특이한 인간으로 찍혀서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다. 나도 운동권 친구, 밴드부, 기숙사 친구, 향우회 등 여러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장학금을 타야되고 유학을 결심해서 학교 사람들과 되도록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3학년 때 프랑스 문화원을 통해 부산 인디영화 감독을 만났고 우연히 부산의 부산진, 보수동, 범일동 등 여러 다른 동네를 알게 되었다. 그는 부산 토박이 출신으로 같이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도 먹고 남포동 일대 사무실 주변에서 감독만 가는 곳에서 밥을 먹었다.

이 분을 통해 영화를 알고 싶어서 알바비도 안 받고 영화 촬영으로 보조로 뛰었지만 너무 추운 겨울에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한 썬만 찍어서 하루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또한 감독의 몇 억씩 되는 빛과 흑독한 날씨에 영화를 찍는 것이 당시 21살인 나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고 ‘영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을 갖게됐



해양대 방파제

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기회가 되면 ‘어때? 해보자!’ 로 바뀌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다.

2000년대 초 남포동에는 볼 게 많았다. 남포동에는 매년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어서 매우 잘 나갈 때였다. 특히 보여주기 좋아하는 부산 사람을 위해 명품 짬뽕 거리, 일본 술집과 일본 구제가가 매우 많았고 갯통시장과 자갈치 시장, 오징어 무침, 파전 거리가 있어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이국적인 식당도 있었다. 흔한 치즈 오븐스파게티나 이재모 피자 말고 당시 남포동에 유명한 ‘인도로 가는 길’이란 인도 식당이 있었다. 들어가면 항상 인도 음악이 틀어졌고 라씨와 커리를 저렴하게 팔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아 부산의 유명한 식당 중 하나였다.

사실 남포동은 항구가 바로 옆에 있어 오픈되고 다양해 보이지만 조폭도 드나드는 곳으로 매우 ‘마초’적인 공간이었다. 특히 일본 스타일 ‘이자가야’도 있어서 사업하고 돈 쓰는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는 공간이었다. 지금은 상권이 많이 죽어서 약간 자본주의가 동네를 휘몰아치고 난 이후 ‘늪은’ 아재’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나의 학창 시절에는 ‘핫플레이스’ 였다.

반면 서면은 당시 2개의 라인 밖에 없는 지하철 교차로로 크로스오버 될 수 있었다. 이질적 문화가 오고 갈 수 있어서 아직도 명성을 유지하며 부산의 젊은이들이 놀러 많이 간다. 오히려 요새는 서면 주변의 전포동 카페와 맛집부터 그리고 부산진 시장까지 더 확대되었다.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서면은 지금처럼 술집과 식당이 많았고 또 하야리 미군부대가 가까워서 영어권 외국인이 많이 가는 ‘할리우드’라는 건물의 상층에 위치한 바

가 있었다. 칵테일로 유명하다고 해서 나도 비싸지만 몇 번 간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냥 외국인 천지의 미국 웨스트바로 거기에 한국 사람들은 소위 ‘미국 남친’ 만 둘러 가는 이쁜 언니들과 외국 손님 친구들로 적었던 거 같다. 난 뭐 이들과 교집합이 전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 레즈비언 친구들과 서면에 더 자주 놀러 간 기억이 있다. 당시 서면에 소위 ‘레즈 바’라고 레즈비언이 가는 ‘팜므(Femme)’라는 지하에 위치한 술집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한창 인터넷 카페 활동을 했고 부산의 레즈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왠지 해양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같았다. 그리고 당시 레즈들은 사실 다 직업을 가진 부산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대학 친구들 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당시 동성애는 부산의 보수적 지역색에서 금기였고 가족, 직장, 학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커밍아웃한 사람이 없었다. 세상이 작다고 이 모임을 통해 내 대학 첫 룸메가 레즈라는 것도 알아냈고 인터넷 모임을 통해 직접 만나면서 우리는 한국의 남성 위주적인 생각이나 상처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

나의 다른 부산 친구인 ‘한나’와도 종종 서로의 감정을 얘기하곤 하였다. 한나는 눈이 크고 예쁜 친구였다. 사투리를 쓰지만 말투가 매우 조곤하고 부드러웠다. 성격도 매우 좋고 책을 읽는 게 취미라 서로 통하는 게 있었다. 한나는 민락동에 살아서 광안리나 해운대 가는 버스를 타고 바다를 자주 보러 간다고 했다. 당시 해운대는 영도에서 큰맘 먹고 가야 하는 거리로 매우 멀었다. 사실 학교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놀러 간다고 하면 남포동, 서면, 경성대 부경대 정도였다. 하지만 해운대는 두 번 갈아 타야 하고 막상 가면 호텔과 아파트 밖에 없는 참 재미없는 곳이었다.

하리에서 본 국립한국해양대 야경



당시 내가 해운대를 가는 유일한 경우는 요트경기장 안에 있는 씨네마테크에 영화를 보는 일이었다. 거기서 종종 유럽의 고전 누벨 바그 영화를 봤다. 프랑스 감독 장뤽 고다르, 장 르누와르, 한국 영화 '송어'와 같은 우리나라 주류에서는 별로 돈이 안 되지만 영화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를 상영했고 난 돈을 털어서라도 보러 갔다. 영화를 보고 요트경기장에서 굳이 해변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바다는 학교로 돌아가도 있기 때문이다.

수 십년이 지나 내가 바다 수영을 배우면서 한나가 얘기한 해운대 바다를 경험하게 되었다. 종종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한나를 생각한다. 한나는 나에게 속에 있는 어린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준 친구였다. 하루는 나에게 기분이 꿀꿀 하면 종종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간다고 했다. 바다를 보며 멍을 때리면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고 했다. 내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연락이 끊겼고 그녀의 마지막 소식은 경찰 공무원이 된 것이었다. 아마도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여성으로 삶의 부조리를 같이 느꼈지만 취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 같다. 한나는 사회에 동조하며 재정적으로 삶의 안정을 원했고 난 가난해도 한국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미련하게 예술을 하고 싶었다.

이후 대학 시절 끝머리에 외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경성대 근처 인디 클럽인 '바이널 언더그라운드'에 가게 되었다. 벨벳 언더그라운드 앨범 커버로 앤디 워홀이 디자인한 '바나나' 작품을 네온 사인으로 설치해서 소위 '바나나 바'라고 불렸던 부산에서 유명한 클럽이었다. 난 사실 이 바를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프랑스 친구와 캐나다 친구를 통해 가게 되었다. 락 밴드 콘서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디제잉하는 곳이다. 지금은 공연할 때만 문을 연다. 사실 당시 부산에서 보기 드문 클럽이었다.

여기에서는 왠지 서울 흥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소위 여긴 쿨한척 하는 사람이 쿨한척하고 춤을 추어도 뭐라 안하는 곳이었다. 그 때 캐나다 친구 이같은 나와 같이 다니며 어렸을 때 가정폭력과 학대를 덤덤하게 얘기하곤 했었고 당시 나는 왠지 나와 유사하다고 느꼈다. 수 년뒤 그가 고국에서 쌍둥이를 가지며 가족을 꾸렸다고 소식을 전해왔을 때 난 매우 기뻐다.

최근 서울에서 민영이를 봤다. 내가 2004년 비엔날레 알바를 통해서 알게 된 부산대 미대 출신 친구이다. 당시 난 사실 한국에서부터 미대를 가고 싶었기에 그 애가 속으로 매우 부러웠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다. 나의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수 십년이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애는 결혼하고 아이도 생겨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나에게 유학을 갈 용기를 부러워했다. 난 그녀가 어찌다가 미술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되었는지 의문이었다. 민영이는 내가 독일에 도착한 바로 그해 여름 프랑스 파리 근처 노장쉬르센느에 레지던시에 붙어서 유럽여행을 왔었다. 난 그녀와 같이 자부리켄 펍에서 밤새도록 춤을 췄다. 어찌면 우리는 늘 서로를 부러워 하지만 우리가 결국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그녀와 작년 청담동에 브런치 카페에서 같이 밥을 먹으

---

---

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출근 난 우리가 아직도 이십대인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마흔이 넘었다.

생각해 보면 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대학교 내내 만나고 다닌 거 같다. 도시의 외부인으로 내부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를 키워준 것은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던 거 같다. 부산이 흥미진진한 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내게 이어준 것이고 나의 첫 사회경험을 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내가 겪은 부산은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줬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Niete' 독일어로 아무것도 아닌 것 바로 이게 내가 부산을 4년 살면서 지닌 자세였다. 이로 인해 모두가 나에게 왔고 난 정말 다양한 사람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지속성에는 부산이란 도시 공간의 성격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사람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역동적이고 순수하고 때론 직설적인 부산 사람들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 인간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면서도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솔직함에 있었다. 도시 공간과 도시 공간의 기억이 순간적이면서도 정연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수년이 지나 다시 부산에 잠시 내려와서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 난 부산이 늙은 도시가 된 것을 느꼈다. 6.25 이후 빠르게 발달 된 부산의 근대화 공간이 이제 하나의 '옛날' 도시가 된 것이다. 부산의 중앙동에 여기저기 근대화 거리 구역이 생겼다. 비엔날레도 이 점을 꼭지 삼아 부산 도시의 역사를 전시 주제로 한 적이 있다. 이제 부산의 중심지가 해운대로 옮겨져 해운대에서 기장까지 개발이 되어서 도시의 얼굴이 바뀐 것이다. 앞으로도 이 도시의 얼굴은 계속 변화될 것이다. 낯설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부산에 나의 기억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기대된다. 🐱

---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10pt 기준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과 필명, 자기소개를 pigheadlab@gmail.com 메일 접수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6, 스물네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이채연, X